

급성 심근경색증에 동반된 심인성 속 환자에서 관상동맥 중재술 후 예후 예측 인자
전남대학교병원 심장센터, 광주원광대학병원

임상엽, 정명호, 배은희, 이상현, 심두선, 양보라, 박형욱, 임지현, 홍영준, 김한균, 김원, 김주한,
안영근, 조정관, 박종춘, 안병희, 김상형, 강정채, 박옥규

배경 및 목적: 급성 심근경색증에 동반된 심인성 속은 사망률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받은 심인성 속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및 시술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예후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24개월간 급성 심근 경색증후 심인성 속이 발생하였던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 받은 143예(57±11세, 남:여=82:61)를 대상으로, 병원 내 생존군[I군:124예(남:여=81:43)]과 사망군[II군:19예(남:여=1:18)]으로 나누어 임상적 특징 및 시술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결 과: II군에서 나이가 많았으며(64±11 세 vs. 73±8 세, $p<0.001$), 좌심실 구혈율이 낮았고(49.9±13.2 % vs. 40.3±12.9 %, $p=0.006$). CK, CK-MB (1228.5±197.3 IU vs. 2281.1±239.6 IU, $p=0.037$, 132.4±17.7 mg/dL vs. 264.8±63.6 mg/dL, $p=0.007$)와 C-reactive protein(CRP)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다(3.78±0.45 mg/dL vs. 8.67±2.37 mg/dL, $p=0.011$).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II 군에서 다혈관 질환의 빈도가 높았으며(27.4 % vs. 94.7 %, $p<0.001$), ACC/AHA 분류상 B2 이상의 복잡병변의 빈도가 높았다(46.0 vs. 73.7 %, $p=0.048$). 시술 관련 요인으로서는 II군에서 재관류술 후 TIMI 3 혈류 도달율이 낮았다(58.9 % vs. 26.3 %, $p=0.042$).

결 론: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받은 심인성 속 환자들에서 시술 전 요인으로서는 나이 및 좌심실 구혈율, CK, CK-MB 및 CRP 수치, 다혈관 질환 및 병변의 복잡도 등이 중요한 예후인자로 작용하며, 시술 후 TIMI 3 혈류 도달율 등이 유의한 예후인자이었다.

경대퇴동맥 관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국소부위 지혈을 위한 Angioseal의 사용과
고식적 압박법의 비교 : 전향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김용훈, 김필호, 이상철, 성지동, 권현철, 김준수, 김덕경, 전은석, 이상훈, 홍경표, 박정의

배경: 경대퇴동맥 관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국소 지혈을 위해 혈관 폐쇄 기구인 Angioseal을 사용한 경우와 고식적 압박법을 시행한 경우의 안정성과 효용성에 관해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 연구는 비-무작위 전향적 단일기관 연구로 경대퇴동맥 관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환자 200명 (Angioseal 사용군 (A군):100명, 고식적 압박법 (B군):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혈 전 Activated Clotting Time을 측정하였고 지혈 후 환자가 일어나는 시간, 활동개시 시간 등을 측정하였으며 시술 후 국소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62±11세였고 남자가 65%였다. 두 군에서 성별, 평균연령, 그리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안정형 협심증은 100명, 불안정형 협심증은 50명, 급성 심근경색은 39명, 그리고 무증상 허혈 11명이었으며 그 분포 또한 두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는 161명이었고 역시 두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모든 환자에서 아스피린이 사전 투여 되었고 ticlopidine 또는 clopidogrel의 투여는 A군 80명, B군 86명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양군에서 ACT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A군이 B군에 비해 시술 후 자리에 앉기까지의 시간 (A군 4.3±0.3시간, B군 13.7±0.8시간, $p=0.004$) 및 활동 개시까지의 시간 (A군 6.8±0.5시간, B군 18.8±2.1시간, $p=0.013$)이 유의하게 짧았다. 시술 후 반상출혈도 A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지만 (A군 3명, B군 12명, $p=0.01$). 혈종, 출혈 발생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시술 1주 후 경과 관찰에서 반상출혈의 빈도는 차이가 없었지만 (A군 11명, B군 9명, $p=0.35$) 혈종의 발생은 A군에서 더 낮았다 (A군 2명, B군 6명, $p=0.04$). 총 재원기간에서는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 ($p=0.48$). 결론: 경피적 관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Angioseal의 사용은 고식적 대퇴동맥 압박법에 비해 환자의 침상 안정 시간을 줄여 주었지만 혈종 및 출혈의 빈도를 낮추지는 못하였다